

입문

유식불교의 역사, 마음구조 분석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 최병식 지음
 현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식불교를 쉽게 설명한 책. 유식불교에 대한 개념과 방법의 진리를 밝힌 후 인도의 유식불교 형성과정과 중국 법상종 성립을 통해 유식불교의 역사를 짚었다. 그리고 주체의 측면과 작용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런 후 삼성설(三性說)을 통해 존재와 비망(迷妄)과 깨달음의 관념을 풀어내고, 유식수행의 5단계를 제시했다.
 도서출판 여래 7,000원 (02)730-8976



불교입문의 교과서

■절에서 배우는 불교/혜자스님 엮음
 자성을 고요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탐·진·치 번뇌에 오염된 심신을 씻어내고 해탈토록 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곳 절에는 산문을 시작으로 전각, 예대의 대상, 조형물, 공양구, 의식구, 장엄구, 상징물, 생활용구 등이 중생들의 해탈과 교화의 방편으로써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들을 대하면서도 그 속에 깃든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으며, 또 궁금하다더라 마땅히 이를 해소할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물론 그 속에 깃든 깊은 의미와 뜻을 바로 전달하는데 교과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절을 찾는 일반인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기도성지/정성운의 지음.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취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병든 사람을 모두 구해하겠다는 약사여래, 천계의 논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찾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감응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8대 국립 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가가 필자로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값 7,000원/(02)730-2500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G2-F21
 절전기능·세계최초의 광선서 학습
 깨끗한 통화(1filter사용으로 잡음 물질 제거)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문자 메시지는 한글 영문 혼용)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x44x26mm
 무게 146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 90분
 배터리 168분
 배터리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압비반)

전화 G2
 SPH-3100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다이얼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x50x22mm
 무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 가격
 [가압비 반납 20,000원]
 [가압비 반납 70,000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요금 납부 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결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이월은 1000원이 추가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중점 중점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가압 무료이용 요금)

신성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이만함 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에세이

업을 벗어난 아름다운 삶

함께 사는 아름다움/김강경·반아심경 풀이/정화스님 지음
 '계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삶의 모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빈 마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움과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마음의 차이다. 우리의 삶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자기 헌정'이란 업에 매여있다.
 <금강경>과 <반아심경>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말하고, 모든 불자들이 이 경전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이 책은 권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헌정'의 업을 벗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성상단식으로 두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에세이식의 소주제로 내용을 분류해 읽는 부당도 없었을만큼 많은 일화가 담겨 있어 재미있다.
 시공사, 10,000원 (02)588-0831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악을 먹지 않는 지구촌을/혜자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약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이 아닌 '법화경'이다. 법화의 양악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풀리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을 믿어 지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프라미언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치관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씨가 많다.
 위음원 12,000원 (051)625-9085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역정자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 인도와 신화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천과 같은 자료도 유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권역 8,500원 (02)754-1614

기타

佛名의미 자세히 소개

■풍수로 보는 가문/강영수 지음
 어떤 가문에서 풍수관세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후자·열부가 나왔는가. 천국을 돌며 후대여명을 하던 풍수사들중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선과 악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 이구만" 그랬다. 괴이하게도 한 가문의 흥망은 '바람'과 '물'이 있을 때 풍수사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흥망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출신 말사들의 무덤과는 달리 대국노와 열작들의 무덤은 명당지라 자라났고 있었음에도 무덤 속은 말러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 '인과응보' 바로 그것이었다.
 인연을 맺은 자가 문인 땅은 나름대로 생각을 강요시켜 그것을 후대로 전한다. 어떤 자는 생전에 자은 악업으로 후손들을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몰아간다. 그 이유는 바로 땅에 있으며,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중명 8,000원 (02)636-6873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중생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내가 지을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원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어 자세히 말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분해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어린이용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인 남는 책. 그대라면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 터니.
 운주사 6,000원 (02)720-9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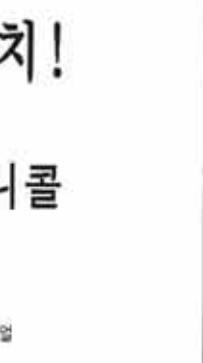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 가르침

■통찰의 체험/원음스님·이금주 공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지도가 골드스테인(J. Goldstein)이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수행을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라는 여러가지 수행법을 혼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력을 기울여 매일 자신 수행을 바쁘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규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남' '우리'나 '그들'이니 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공의 열매가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매력에 있다.
 한결, 5,000원 (0346)574-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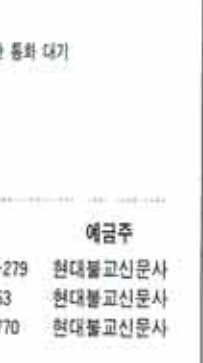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중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피븐은 박사 연구원은 율리우스에 대한 연구들에 놀라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3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荒唐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낸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숲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카사키 지기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축적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명정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흥사성 권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 같은 부처님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다. 단정하고 현명한 내용이 아니라 그 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결한 특수함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권록이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헌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승 8,000원/(02)723-1679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
 원연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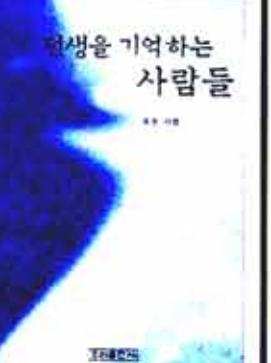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 가르침

■통찰의 체험/원음스님·이금주 공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지도가 골드스테인(J. Goldstein)이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수행을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라는 여러가지 수행법을 혼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력을 기울여 매일 자신 수행을 바쁘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규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남' '우리'나 '그들'이니 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공의 열매가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매력에 있다.
 한결, 5,000원 (0346)574-5585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중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피븐은 박사 연구원은 율리우스에 대한 연구들에 놀라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3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荒唐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낸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숲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카사키 지기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축적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명정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흥사성 권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